



부안 내소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준엽 기자

“자연과 하나된 고귀한 경험”

미8군 장병 가족 16명 내소사서 템플스테이

“Interesting · Natural · Peaceful · Calm!!! (흥미롭고 자연스러우며 평화롭고 고요하다)”

7월 17~18일, 템플스테이 참가자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를 찾은 미8군 장병과 가족들은 사찰체험 프로그램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 체험하는 한국 전통 사찰생활은 힘들면서도 신비롭기만 했던 것이다.

며 소감을 들려준다. 긴장과 흥미는 진행하는 사찰체험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내소사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템플스테이사업단이 선정한 템플스테이 지정운영사찰 중 처음 진행된 것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총괄진행을 맡은 총무 진원 스님은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차 마시기와 연등 만들기, 탑돌이 등 시간이 흐르면서 여유가 배어나온다.

깊은 밤, 모두들 잠이 들어야 할 시간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연등을 직접 들고 대웅전 앞에서 탑돌이를 했다. 이 어린 사찰왕문 앞 연등에서의 제등행진은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함에 빠져 있었다.

부안 정년회가 연꽃사이에 연등을 밝혀놓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뷰티풀! 아름다워!”를 연발했다.

“영적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탑돌이 · 제등행진하며 ‘뷰티풀’ 연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선정후 첫 행사

미군복지지원단체(USO) 인솔로 내소사에 도착한 인원은 16명. 한 달 전 한국군부령명 받고 미군 병원에 근무하는 렉스(38) 씨는 부인과 세 자녀까지 데려왔다.

가족들은 열흘 전에 한국에 왔고, 사찰생활은 동화 속을 거닐 듯 신비롭기만 했다.

“밥이 맛있어 좋았는데 그릇 씻은 물을 먹으라고 해서 아직도 속이 이상해요. 죽비 든 스님이 ‘먹은 음식과 그릇 씻은 물과 무엇이 다르냐’고 해서 생각해보니 같은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접하는 사찰예절을 익히느라 오후 내내 굳어있던 렉스 씨의 큰아들 루케(11) 군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적응이 되는지 합장하

이 많은데 잘 적응해 줘 고맙게 생각합니다”며 “사찰이 고생하는 곳이나 재미있고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공간임을 체험하고 세계에 전해준다면, 포교뿐 아니라 이보다 좋은 외교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외국인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내소사 사찰체험도 사찰예절, 예불, 발우공양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마다 사찰 고유의 연속함으로 대부분 시키지 않은 ‘묵연’

시 · 공간을 초월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입니다. 이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등행진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클린트(21) 씨는 “사찰에서의 생활 하나하나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사찰체험 기회가 또 주어진다던 동료들과 같이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은 “앞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려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준엽 기자

백천사,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24시간 상담...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첩 배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찰에 설립됐다.

경기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7월 15일 사찰 경내에서 ‘남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가정 및 아동폭력 등을 내용으로 24시간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소는 또 개원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 365 수첩’을 1천개를 제작해 지역민과 사찰을 찾는 내담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 대처방법, 신고 및 상담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상담소는 특히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최근 설립한 수요사회복지대학 불교상담학과 졸업생 1백여 명이 순번제 자원봉사자로 나서 상담을 맡고 있다.

상담소장 무구 스님은 “앞으로 내담자들을 위한 폭력예방 관련 교육 강화를 마련하는 등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577-0020, 011-9768-9551 김철우 기자

“중도화합·대사회 문제 적극 나서자”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 주지총회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원장 법천 스님)은 7월 14일 광주 운전자 총무원에서 주지총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초청강연을 겸한 이날 총회서 총무원장 법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 보우국사의 뜻을 받들어 중도들의 화합과 향유 중단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와 중무행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현

한국불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중생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타성을 벗고 대사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운산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함께 갈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중단을 위해 모든 중도가 화합하고 중단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엽 기자

장애우 해변 나들이 광주 운전자불자회

광주불교 운전자회(회장 유영식)는 7월 21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들을 위한 ‘여름 해변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운전자회는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참가한 개인택시 20여대에 장애우 60여명을 태워 변산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번 해변 나들이에 참가한 장애우들은 정신지체 2-3급과 지적장애 1-3급 장애우들로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외출을 할 수 있으며, 평소 해변 나들이를 가장 원했다.

7번째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불교 운전자회 유영식 회장은 “불자운전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 가겠다”며 “금년부터 장애우 나들이행사를 년 2회로 늘려 가을에 한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명상·산책·참회 수련회 보우승가회, 선암사서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호명)는 7월 28-30일 순천 선암사에서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불자기증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법회에서는 선암사에 주석했던 역대고승들의 수행일화 스토리를 정리하고 소개해 주 사스님 행장 소개 프로그램과 조계산 산내를 거닐며 자신의 마음을 찾아 가는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 마음 찾기 명상 및 산책’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최근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불교의식 중의 하나인 관음예문을 직접 독송하며 참가자들 스스로 참회와 선불을 위한 기행 정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자가 죽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어른 5만원, 청소년 3만원. (061)754-5247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삶에서는...

양주 대원정사

전통문화 살아 숨쉬는 절



양주 대원정사 신도들이 법당에서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다.

경기 양주시 양북면 자락에 자리 잡은 지장도량 대원정사(주지 해린)는 지 금 이 곳은 ‘문화포교’ 중심 사찰로 변신 중이다. 매주 일요일, 지역주민과 신도들에게 법당을 한국전통음악의 배움터로 내어줬고 가족 단위의 템플스테이도 기획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주지 해린 스님의 ‘문화 불사’ 원력이 자리잡고 있다.

대원정사는 지난 1986년, 9평짜리 도로 창건된 조그마한 사찰이었다. 초창기 천막과 비닐하우스를 번갈아 옮겨

고, 경내에 탁구대, 농구대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센터를 제공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하초등학교 축구부전 경기장도 매주 일요일, 지역주민과 신도들에게 법당을 한국전통음악의 배움터로 내어줬고 가족 단위의 템플스테이도 기획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주지 해린 스님의 ‘문화 불사’ 원력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포교가 바로 불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찰에 빠져들고,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게 진정한

음악강좌 개설 통한 주민과 공감대 형성 ‘판소리 합창단’ 구성 등으로 포교 진력

가며, 세상에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질야로 알렸다. 그리고 지금, 대원정사는 7천여 평 부지에 회의실, 종무소, 다도실, 거사림회 공간이 들어선 2층 규모의 큰 절로 발전했다.

그럼, 대원정사가 이번에 ‘특별한’ 불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 불교를 제대로 알려보자는 해린 스님의 발원으로 찾을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 사물놀이 등의 전통음악강좌를 개설한 것도, 오는 가을부터 가족 단위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대원정사는 줄곧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6년 전부터 어린이수련회를 열어 새싹 불자 포교에 앞장서왔



대원정사 주지 해린 스님.

블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사찰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라야 지역과 불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문화 불사 발원은 올 가을 ‘지장대불 낙성 기념 산사음악회’ 개최로 이어진다. 또 전통음악강좌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판소리 합창단’도 발족시켜, 지역복지 시설과 불자들을 위한 ‘음성공양 보살’들로 키울 생각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가족과 직장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매주 열여 사찰 체험의 진수를 보여 줄 예정이다. (031)855-5501-3 양주=김철우 기자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문수 도량 오대산 첫자를 전세기로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발일: 1차 9월11일-14일(3박 4일) 2차 9월14일-17일(3박 4일) 3차 9월17일-20일(3박 4일) 4차 9월20일-23일(3박 4일)
- ※선착순 각 35명 한정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천 대동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오전 10시 10분 인천 출발 - 태원 도착 후 오대산으로 이동 불경사 순례 후 오대산 도착 - 호텔투숙	제 3일	오대산	운강석굴, 응현 목탑 순례 후 대웅 출발 태원 도착 후 호텔 투숙
제 2일	대동 오대산	수성사(법회), 중대(자정용사 수행제), 헌문사, 대라정(영복 케이불가) 순례 후 오대산 출발 대동 도착 후 호텔 투숙	제 4일	오대산 태원 인천	진사 순례 후 전세기편으로 오후 1시 태원 출발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9월 1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일 정: 파키스탄 라호르-타실라-페사워르-스와트-힐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 부탄 왕국 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 430만원 (인솔자 동행)
티베트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베트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일 정: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조망)-정무-카트만두
- 티베트, 네팔 일주 11일 (출발일: 9월 2일) 259만원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왕국 부탄 - 팀푸 축제 참관 및 불교성지를 순례합니다.
● 일 정: 인천-부탄의 파로-팀푸(팀푸축제참관)-통사-왕디포르당-푸나카-파로-인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달마 면벽구년의중생해도인 것이다

삼나만상을 창조한 선존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비극담마도법으로 지각이 변동되는 양 8월 8일 자시와 9월 9일에 구하여는 경신일이 들어 오미다당당의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 경제정치 과학교육이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미륵달마 진법으로 하늘과 땅 지구촌 대서사시의 오행과 질서가 나란히 찬란한 일직각으로 되는 날인교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감신 율유 천주수는 물과 불과 이음모를 괴질과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교로 혼란에 경신입문한 공덕은 평상시 삼나만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대용맹정신 수행인 것이다. 이 상서로운 법회에 대해하며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달마 면벽구년 근본인 것이다.

동양 미술 대전 특전 및 동경 국제 내외대인 대인단 단선작품

비밀 문화예술 중국 일본 한국 문화사 수상 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만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당노병 및 비만증과 질병을 이기는 비법을 전수함

1. 지구촌 개혁이 시작되는 금년 5월부터 시작되어 감신년 7월과 8월 9일에는 경신이자 달마가 들어 물과 불이 기승을 부리고 지구촌 온난화로 이음모를 괴질과 질병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시작되는 지구촌 개혁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한경신도통도인이며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종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인 자시와 오시에 전대양법으로 천안통을 열어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반이 삼시구종을 모두 제도하므로 지각이 변동되고 지구촌 개혁시대에 6경신 도통회로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이다. 이 법은 역대도인들과 북쪽부터 유순, 우랑, 선천, 후천, 진시왕, 환무제, 관음장, 진무, 서산, 사명, 방한암, 탄허, 원고암대선사들께서도 이 법으로써, 원효, 의상, 도선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중주도 된 것이다.

2. 말법시대에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스승과 문중을 배신하고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 척 하는 자는 하늘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로 오직 마음을 모두 비운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빛 7차와 귀신우두머리 부처에 귀의하여 이 기도는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므로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순종하며 이치에 따르는 자

지구촌에 천지개혁시대가 오고 있다

경신도통비법으로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개혁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만이 진광대도에 들어 정신과 마음을 다바쳐 수행, 경신인 자시와 오시에 천안통진광대도법으로 천문을 열어 전대양법으로 인가하여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천하중생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중생들이 가장 고통받는 육신에 병, 정신에 병, 감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정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경신도통이란 무엇인가
1)천안통 2)천이통 3)타심통 4)신족통 5)속명통 6)진진통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60년, 60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도 60세 환갑이 돌아오는 것과 기동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 번뇌마, 인마, 정신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에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대승전교로,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이며, 이 도는 주문과 스승없는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 천이통경, 탐심통경 등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감신이 빚이되어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한 것을 보고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하는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에게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 것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사명자 도통군자지망생 선착순

- 입제: 감신년 양 8월 8일 일요일(해시)
- 해제: 감신년 양 8월 9일 월요일(해시)

021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010-2932-3110 FAX 021821-7768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구 85, 25, 105, 33-1, 26, 303, 142, 26-3, 102번모터원고개하차.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 흥 본산